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8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8
2020 년 10 월 18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19312340](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9312340)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0 월 18 일

차례

1. [민주노총이여노동의큰희망이여노동자주인되는날까지힘차게투 쟁하여라]	3
2. [비대면해고에맞선대면투쟁]	4
3. [반성해야할사람은그녀가아니라우리다]	5
4. [태국국왕라마 10 세는사랑을구걸하지말라]	5

냈다. '신성불가침' 의태국국왕의육성이이렇게방영되는것은이례적이라고하니얼마나현상황이위험적으로느껴지는지를보여준일레라고하겠다. 그는현시위에대해언급하지는않았으나" 지금이나라에는나라를사랑하고왕실을사랑하는사람들이필요하다" 는의견을피력했다.

사랑을갈구해야하는신성불가침의존재란얼마나처량한가. 국왕이진정살아있는부처이자신이라면그가보살핀다고하는이들의의견을이렇게오랫동안고생시키며길거리에세워둘수는없는노릇이다. 물대포를뿌려대며공격할수없는노릇이다. 상대를죽이려고하면서어떻게그들에게사랑을달라고말할수있는가.

세계에서가장부유한왕가가태국왕가이며그재산이 46 조원에달한다는등의이야기는굳이길게덧붙이지않겠다. 관광산업이큰 비중을차지하는태국경제는코로나 19 로무너져가고, 많은사람들이일자리를잃었다. 또한태국은입헌군주제를표방하고있음에도와치랄롱꼰은권력을강화하고정치에개입하려는여러시도를행하고있다. 뿌라윳총리마저왕실의꼭두각시에불과하다는의혹이나오는중이니이는더말할필요가없을것이다.

사랑받는왕으로명예롭게남고싶은가? 그렇다면뿌라윳짜오찬총리와함께국왕의자리에서내려오라. 사랑하는국민들과함께같은자리에서같은노력들을다하라. 그렇게하면구걸하지않아도, 저절로태국국민들은당신을한인간으로사랑해줄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1. [민주노총이여노동의큰희망이여노동자주인되는날까지힘차게투쟁하여라]

선거철이되기는되었나보다. 올연말있을민주노총직선임원선거를앞두고, “민주노총산하공공기관노조”들이토론회를열고, “민주노총이시대착오적인투쟁방식에서벗어나사회적대화를병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

민주노총의소위“사회적대화”참석및합의여부는김명환씨체제아래에서꾸준히뜨거운감자였고, 이름만바꾼형태의노사정위참석, 합의안의결여부로대의원대회만두번을진행했다. 그리고그모든대의원대회에서는“사회적대화”가모두부결되었다. 그리고김명환씨는조합원이직접선출하여부여한위원장직위를값싸게도내던지고야인으로돌아가셨다.

토론회에참가한패널들께서는현비상대책위원회체제의“강경노선”을비판한다. 그렇다면구약상민주노총의최고의사결정기구인대의원대회가이정세에서, 지금의정부의태도아래에서“사회적대화”를부결했는데, 민주노총의집행부가대의원대회의명확한의사표명을부인하고또다시“대화”에나서야한다는것인가? 패널들께서원하시는것이민주적노동조합이맞기는한가?

물론, 승리하는그때까지결코타협하지않고투쟁, 투쟁, 또투쟁해야한다는“투쟁무새”노릇을하고싶은생각은없다. 노동조합은언제나다음의투쟁을준비해야하고, 그러기위해타협과교섭과대화하는것역시조직의중대한책무이기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운동을필자보다더오래해오신선배들께이정도의가장기본적인사실을다시금인지시켜드려야할것이라고는생각하지못했는데, 투쟁이없이는유의미한교섭은가능하지않다. 투쟁이있어야교섭도열리고, 투쟁이있어야합의도만들어진다. “사회적대화”를하나의“교섭전술”로사용하고싶다면, 사회적투쟁을조직해야한다. 대정부교섭을하고싶다면, 대정부파업을조직해야한다.

글을쓰다보니, 노동조합운동의선배들께너무나도무례하고원색적인비난을가한것같다. 이선배님들이이토록기본적인사실을모르실리가없는데말이다. 오랜투쟁에지치고, 끝이보이지않는투쟁의길이라는것은괴로운것이기예이렇게될수도있겠다싶다. 그리고그렇다면, 각자의현장에서조용히, 투쟁이빠진대화와교섭을만드시면되지않는다.

우리는아직지치지않았고충분히괴롭지않기에, 더욱더힘찬투쟁을, 이에기반한합의를조직하겠다.

“아나키즘적조합주의자들은결코정치적투쟁에반대하지않는다. 하지만, 그들은이투쟁역시직접행동의형태로, 노동계급이통제할수있고, 가장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는경제적힘의수단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한다.”

- < 아나르코생디칼리즘 >, 루돌프록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r>

2. [비대면해고에맞선대면투쟁]

2020년 10월 18일 기준 열흘 전 10월 8일, 한동대측의 일방적인 비대면 해고에 맞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한 지 어언 100일이 지났다. 한동대측은 노동조합을 했다고,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그것도 무려 현수막 하나를 내걸고 말이다.

투쟁 100일차의 한동대미화분회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를 당해 투쟁 중에 있던 울산중양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리해고'라는 공통점을 가진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했다. 비록 한동대학교와 울산중양병원의 거리와 구성원들의 사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자본가의 착취와 국가의 무관심에 맞서 함께 하고 투쟁할 수 있음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어떠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숭고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한동대미화분회 청소노동자들은 박카스 한 상자 뿐인 별 것 아닌 선물에도 뿔뿔이 기뻐하면서 함께 연대하러 와 준 사람을 환영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친구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생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을 뿐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웠고 협상했을 뿐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를 내팽개치고 해고하고 억압했으며, 쫓아냈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자본에 부역했으며, 자본은 이에 날개를 달아 마음껏 노동자들을 때려부수기 시작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그 모든 움직임을 '비효율'과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핏박하고 찍어눌렀다. 그들이 그 어떤 움직임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국가와 자본에 위협이 되거나 피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엄벌'을 한다거나 '형사처분'을 하겠다는 동의 협박과 압박을 내비쳤다. 이로써 국가와 자본은 노동자, 인민에게는 그저 해를 끼치는 존재임이 입증된 것이다.

노동자와 인민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 끊임 없는 투쟁을 통해 궁극적인 해방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장 힘든 사람과 함께 연대함으로써 사회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 한동대미화분회의 투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아나키스트 연대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의지를 더한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401769>

3. [반성해야 할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우리다]

지난 16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20만원의 판매금액으로 자신의 첫 먹이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결과 아빠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미혼모가 입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감정적으로 울렸다고 진술하였다.

해당 미혼모는 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아기 아빠 없이 혼자서 아이를 부양해야 할 상황이었고,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한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건을 통해 한국 사회에 현존하는 큰 두 가지의 부조리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양육의 사회화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대의 부담을 덜도록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갈 기본적인 의무를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둘째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첫째와 같이 사회보장이 부재하고 양육의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에서 신체적 특성상 필연적으로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가해질 부담에 대한 안전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어떤 이들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지는 일을 개인의 문제로 몰아간다. 하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난한 자는 낳지도 말고 꾸리지도 말라는 19세기 멜서스식적 자생론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다. 진보하는 사회로서 양육의 사회화는 빈곤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며 어려운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함의로의 필요성은 물론 양육의 부담을 본인에게 한정 짓는 것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가정에만 매이게 하여 사회 진출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음을 생각할 때, 이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양육의 사회화는 우리의 의무이다.

이중 누구도 이번 일에 대해 비난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양육의 사회화 담론을 논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4. [태국 국왕 라마 10 세는 사랑을 구걸하지 말라]

태국 정부의 시위 금지령과 대중교통 폐쇄에도 굴하지 않은 수많은 태국 시민들이 연일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짜라웃 짜오 차 총리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으로 시위대의 의견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시위대에 의하면 짜라웃 총리는 권력 유지를 위해 선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왕 라마 10세, 마하와치랄롱꼰 역시 이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지왕실 반대에서 지지로 전향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3분 가량 방송으로 내보